

# 청소년지도자 연수운영 개선방안

— '92청소년전문지도자 양성(특별)과정을 중심으로 —

최 은 규\*  
김 호 순  
김 정 주

- I. 서 론
- II. 본 론
- III. 결론 및 제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개인의 소질을 개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가정환경과 입시중심교육의 학교, 비교육적이고 오염된 사회환경과 사회적 무관심 등 왜곡된 환경속에 방치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입시위주의 학습압력, 날로 증가하는 유해환경의 유혹, 급증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의 양상 등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또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사회속에서 협동하며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으로 1991년 6월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와 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개인의 자질이나 취미를 계발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의 체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활동할 내실있는 수련거리와 수련시설을 마련해주고 이들을 이끌어 줄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며 수련활동을 주로 맡아서 실시할 단체를 양성 및 활성화 시키는 일을 4대 요소로서 주요 골간으로 담고 있다. 이 계획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은 『청소년기본법』이 1993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공동연구자는 본 연구원의 최은규(주임연수원), 김호순(주임연수원), 김정주(연수원)임.

청소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성패가 교사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청소년지도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지도자의 실태를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자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45).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3년부터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사업이 한국청소년개발원(현 한국청소년연구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아직까지 연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실험적 성격으로 1992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지도자 연수가 체육청소년부의 위탁으로 한국청소년연맹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 이번 '92청소년전문지도자 양성(특별)과정은 2기에 걸쳐 353명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 졌으며 청소년육성 관련기관과 단체 및 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아직까지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교육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1993년 이후의 청소년전문지도자 양성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잠재적 교육대상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선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 시기, 교육자료 및 교수방법의 선택, 대상자의 선발, 교육장소의 선정 등 운영의 측면에서 교육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사회교육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서 직접적으로 연수에 지원한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연수대상자의 요구에 기초한 연수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지도자들의 요구에 관한 연구가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 현직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졌었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167-209). 한편 지금까지 있었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연수사업이 각 단체별로 산발적인 단기연수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청소년개발원 중심의 연수사업은 적어도 1개월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장기간의 연수가 될 전망이어서 연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에 1개월의 장기합숙연수를 경험한 청소년지도자와 희망자들의 반응과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개발원의 연수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92청소년전문지도자 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연수생들 대상으로 연수운영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는 '92청소년전문지도자 양성(특별)과

정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사업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연수운영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수생의 모집, 선발, 연수시기, 방법, 연수환경, 학습생활, 평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연수요원의 직접 참여에 의한 참여관찰, 연수생들과의 개별적인 면담, 설문조사, 건의사항 및 연수소감문의 분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참여관찰 및 연수생 개별면담은 연수요원들이 연수생으로 직접 참여하여 연수과정을 직접 이수함으로써 형식적인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파악되기 어려운 점들을 관찰하였다.

설문조사는 연수전과 후에 실시하였다. 연수에 관한 정보입수방법, 연수참여동기, 연수참여 저해요인, 학습하고 싶은 분야 등을 연수가 시작되는 날에 조사하였고, 연수기간중 느낀점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점, 만족정도 등을 연수가 끝나는 날에 조사하였다. 총 연수인원 357명중 연수전설문조사에 323명, 연수후설문조사에 265명이 응답하였다.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항별로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건의사항 및 소감문 분석은 분임토의 및 과제연구시간을 이용하여 연수생 개별적으로 작성 제출케 하여 분석하였다.

# II. 본 론

## 1. 응답자의 특성

2회에 걸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경력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수전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323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208명(64.4%), 여자 115명(35.6%)이었다. 연령별로는 29세이하 124명(38.4%), 30~39세 146명(45.2%), 40세이상 53명(16.4%)이었다. 경력별로는 무경력 123명(38.1%), 유경력 200명(61.9%)이었다.

연수후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265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160명(60.4%), 여자 105명(39.6%)이었다. 연령별로는 29세이하 112명(42.3%), 30-39세 106명(40%), 40세이상 47명(17.7%)이었다. 경력별로는 무경력자 96명(36.2%), 유경력자 169명(63.8%)이었다.

성별과 연령은 문항을 예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경력은 본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경력은 청소년지도자로서 일한 경험을 말하며 자원지도자로서의 활동 경력을 포함한 것으로 현재 청소년지도자로 일하고 있는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경력자는 현재 직접·간접적으로 청소년지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청소년지도자로 간주할 수 있다.

## 2. 조사결과의 분석

### 1) 연수에 관한 정보 입수 방법

잠재적 연수대상자들에게 연수사업을 알리는 것은 연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력

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하겠다. 또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이 현직 청소년지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안되어있는 상태이므로 홍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번 연수생들이 연수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가를 조사 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연수에 관한 정보 입수 방법을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모두 신문광고에서 정보를 입수한 것이 다른 방법 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력별로 볼때에는 무경력자는 신문광고 82.6%, 기타 7.4% , 지방자치단체 협조공문 5.8%, 청소년단체의 홍보물 4.1%, 순으로 나타났고 유경력자는 신문광고 44.7%,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공문 26.1%, 청소년단체의 홍보물 23.1%, 기타 6.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신문광고 59.1%,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18.4%, 청소년단체의 홍보물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정보 입수방법에서 신문광고에 의존한 비율이 60%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무경력자 즉 청소년지도 희망자의 경우 80% 이상이 신문광고를 통해서 연수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력자의 경우도 44.7%가 신문광고에서 정보를 입수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 단체 조차도 제대로 확산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청소년 지도자 연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청소년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중요하고 현직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연수전에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관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1> 이번 연수에 관한 정보 입수 방법  
N=320(100.0%), 단위 : %

구 분	신 문 광 고	청 소 년 단 체 의 홍 보 물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공 문	기 타	계
성 별					
남 자	63.6	16.0	15.0	5.3	100.0
여 자	50.9	15.8	24.6	8.8	100.0
연령별					
20대이하	62.1	16.1	17.7	4.0	100.0
30대	58.0	16.1	18.9	7.0	100.0
40대이상	54.7	15.1	18.9	11.3	100.0
경력별					
무경력	82.6	4.1	5.8	7.4	100.0
유경력	44.7	23.1	26.1	6.0	100.0
계	59.1	15.9	18.4	6.6	100.0

## 2) 연수 참여 동기

연수생들이 연수에 참여하는 동기가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냐 하는 문제는 연수생의 연수 태도 및 연수사업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각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해온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연수의 상당부분이 소속단체의 직원들의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였고 일주 이내의 단기과정이었다. 반면에 청소년지도자 자격획득을 위한 연수는 장기적인

것이어서 청소년지도 희망자의 경우 자발적인 동기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현직지도자의 경우 소속단체의 상당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수생들이 연수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조사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연수참여 동기는 전체적으로 80.5%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참여하였고 소속단체의 추천은 11.1%였다. 성별과 연령구분 모두 본인의 희망이 타동기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력구분에서도 무경력자는 본인의 희망이 88.6%, 소속단체의 추천이나 권유 4.9%, 기타 4.9%, 직무상 필요성이 1.6% 순으로 나타났고 유경력자도 본인의 희망이 75.5%, 소속단체의 추천이나 권유 15.0%, 직무상 필요성 9.0%,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번 연수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로 볼때 80.5%였고, 유경력자의 경우도 75.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 참여 의식이 높은 결과로 활발한 동기 형태로 간주되지만 각 단체의 추천이나 직무상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항목에 대한 반응이 낮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각 청소년단체 및 유관기관에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수 참여의 장애 요인

연수생들이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표 3>과 같았다.

<표 3>에서 보면 성별로 볼때 남녀 모두 연수에 관한 정보부족이 타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구분에서는 20대 이하 61.5%, 30대

<표 2> 연수에 참여한 동기  
N=323(100.0%), 단위 : %

구분	본인의 희망	소속단체의 추천	직무상 필요성	기타	계
성별					
남자	81.7	9.6	6.7	1.9	100.0
여자	78.3	13.9	5.2	2.6	100.0
연령별					
20대이하	88.6	4.9	1.6	4.9	100.0
30대	80.1	9.6	7.5	2.7	100.0
40대이상	79.2	9.4	9.4	1.9	100.0
경력별					
무경력	88.6	4.9	1.6	4.9	100.0
유경력	75.5	15.0	9.0	0.5	100.0
계	80.5	11.1	6.2	2.2	100.0

<표 3> 연수에 참여 하는데 어려운 점  
N=292(100.0%), 단위 : %

구분	소속단체의 해촉	숙제이부	담당업무에 따른 간섭	당무때시부	연에한정보부	수관정부	기타	계
성별								
남자	10.0	34.2	46.3	9.5	100.0			
여자	7.8	30.4	52.0	9.8	100.0			
연령별								
20대이하	5.5	25.7	61.5	7.3	100.0			
30대	9.0	36.8	42.1	12.0	100.0			
40대이상	18.0	38.0	36.0	8.0	100.0			
경력별								
무경력	4.6	14.8	69.4	11.1	100.0			
유경력	12.0	43.5	35.9	8.7	100.0			
계	9.2	32.9	48.3	9.6	100.0			

42.1%로 연수에 관한 정보부족이 타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은 담당업무에 따른 시간부족 38.0%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구분에서 무경력자는 연수에 관한 정보부족 69.4%, 담당업무에 따른 시간부족 14.8%, 기타 11.1%, 소속단체의 이해부족이 4.6% 순이고 유경력자는 담당업무에 따른 시간부족이 43.5%, 연수에 관한 정보부족 35.9%, 소속단체의 이해부족 12.0%, 기타 8.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정보부족 43.3%, 담당업무에 따른 시간부족 32.9%로 나타났고, 무경력자는 연수에 관한 정보부족이 69.4%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유경력자는 담당업무에 따른 시간부족이 43.5%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전문지도자 양성(특별)과정이 시범적으로 실시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활성화 되지 못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홍보가 강화되고 청소년단체들의 이해가 확산되고 청소년지도자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경력자의 연수참여 장애요인으로 중요한 담당업무에 따른 시간부족은 250시간 이상의 장기연수가 될 경우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4) 연수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야

연수생들이 이번 연수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분야는 <표 4>와 같았다.

<표 4>에서 연수생들이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내용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연수생은 청소년 이해이론 29.3%, 집단활동지도 24.5%, 프로그램 개발 18.3%, 단체운영실무 13.9% 순이고 여자연수생은 상담기법 27.2%, 청소년

<표 4> 연수에서 학습하고 싶은 분야

N=322(100.0%), 단위 : %

구 분	청소년 이해이론	집단활동 지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단체운영실무	상담기법	기 타	계
성 별								
남 자	29.3	24.5	1.9	18.3	13.9	10.6	1.4	100.0
여 자	21.9	21.1	5.3	18.4	5.3	27.2	0.9	100.0
연령별								
20대이하	22.6	24.2	4.0	19.4	9.7	19.4	0.8	100.0
30대	31.7	18.6	2.1	19.3	12.4	13.8	2.1	100.0
40대이상	22.6	34.0	3.8	13.2	9.4	17.0	0.0	100.0
경력별								
무경력	27.6	19.5	6.5	9.8	13.0	22.0	1.6	100.0
유경력	26.1	25.6	1.0	23.6	9.5	13.1	1.0	100.0
계	26.7	23.3	3.1	18.3	10.9	16.5	1.2	100.0

이해이론 21.9%, 집단활동지도 21.1%, 프로그램 개발 18.4%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구분에서는 20대이하는 집단활동지도 24.2%, 청소년 이해 이론 22.6% 순이고 30대는 청소년이해이론 31.7%, 프로그램 개발 19.3% 순이고 40대 이상은 집단활동지도 34.0%, 청소년이해이론, 22.6% 순이고 경력구분에서는 무경력자는 청소년이해이론 27.6%, 상담기법 22.0%, 집단활동지도 19.5% 단체 운영 실무 13.0% 순이고 유경력자는 청소년이해이론 26.1%, 집단활동지도 25.6%, 프로그램 개발 23.6%, 상담기법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학습에 대한 요구가 내용별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 연수생은 청소년 이해이론, 여자연수생은 상담기법을 가장 학습하고 싶은 분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와 40대 이상은 집단활동지도가, 30대에서는 청소년 이해이론을 가장 학습하고 싶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수생들은 청소년 이해이론, 집단활동지도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담이나 전의사항을 통해서 볼때 현직지도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요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전문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청소년지도자 연수는 이러한 전문적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연수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분야

연수생들이 이번 연수를 수료한후 연수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분야는 <표 5>와 같았다.

<표 5>에서 보면 연수에서 도움이 되었던 분

<표 5> 연수에서 도움이 되었던 분야

N=258(100.0%), 단위 : %

구 분	청소년 이해이론	집단활동지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상담기법	기 타	계
성 별							
남 자	64.3	13.4	7.6	7.0	4.5	3.2	100.0
여 자	48.5	21.8	11.9	7.9	4.0	5.9	100.0
연령별							
20대이하	52.3	16.8	14.0	6.5	4.7	5.6	100.0
30대	64.5	17.3	5.8	7.7	3.8	1.0	100.0
40대이상	57.4	14.9	6.4	8.5	4.3	8.5	100.0
경력별							
무경력	64.0	11.2	9.0	7.9	6.7	1.1	100.0
유경력	55.0	19.5	9.5	7.1	3.0	5.9	100.0
계	58.1	16.7	9.3	7.4	4.3	4.3	100.0

야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녀연수생 모두 청소년 이해이론, 집단활동지도방법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볼때 청소년 이해이론이 타분야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력별 구분에서는 무경력자가 청소년이해이론 64.0%, 집단활동지도방법 11.2% 레크리에이션 9.0% 순이었고, 유경력자는 청소년이해이론 55.0%, 집단 활동 지도 방법 19.5%, 레크리에이션 9.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번 연수가 연수생들이 요구하는 분야의 교육내용을 골고루 제공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수의 교과과정이 청소년이해론에 치중하여 편성된것 보다는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각 영역별로 필요한 실습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데에서 나타난 반응으로 이해된다. 집단지도방법,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기법, 상담기법등의 교육은 각 교과목의 특성상 실습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공간과 시간의 부족으로 강의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 6) 청소년 지도현장에서 중요한 분야

연수생들이 청소년을 지도하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면 연수생들은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중요시 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지도 46.0%, 시민정신의 함양 34.7%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수생들의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연수생은 시민정신 함양 41.3%,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지도 40.6% 순이고 여자연수생은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지도 54.3%, 시민정신함양 24.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이하와 30대는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지도가 40대 이상은

<표 6>

청소년지도에서 중요한 분야

N=265(100.0%), 단위 : %

구 분	개인의 능력과 소질 개발지도	시민정신 함양	야외활동 및 체력단련 지도	오락 및 여가활동 지도	봉사정신 및 봉사활동 지도	기타	계
성 별							
남 자	40.6	41.3	2.5	3.8	8.1	3.8	100.0
여 자	54.3	24.8	1.9	5.7	9.5	3.8	100.0
연령별							
20대이하	49.1	33.0	2.7	4.5	8.9	1.8	100.0
30대	48.1	32.1	1.9	4.7	7.5	5.7	100.0
40대이상	34.0	44.7	2.1	4.3	10.6	4.3	100.0
경력별							
무경력	49.0	36.5	2.1	4.2	6.3	2.1	100.0
유경력	44.4	33.7	2.4	4.7	10.1	4.7	100.0
계	46.0	34.7	2.3	4.5	8.7	3.8	100.0

시민정신 함양이 각각 타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무경력자도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지도 49.0%, 시민정신함양 36.5% 순이고 유경력자도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 44.0%, 시민정신 함양이 3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연수생들이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민주적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번 연수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점

연수생들이 이번 연수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수업 방법 30.7%, 연수프로그램운영 28.4%, 프로그램의 수준 18.8%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연수생은

수업방법 31.2%, 프로그램 운영 22.9%, 프로그램 19.1%순이고 여자연수생은 프로그램 운영 36.5%, 수업방법 29.8%, 프로그램수준 18.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이하는 프로그램 운영 36.4%, 30대에서는 수업방법 35.2%, 40대이상은 프로그램 수준 26.1%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무경력자는 수업방법 37.6% 프로그램 운영 36.6%, 프로그램 수준 12.9% 순이고 유경력자는 수업방법 26.8%, 프로그램 운영 23.8%, 프로그램의 수준 22.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수업방법과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준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업에서 교과내용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실습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하루 10시간씩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연수생들의 휴식과 자율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고, 수업내용도 일반적

<표 7>

이번 연수에서 개선할 점

N=261(100.0%), 단위 : %

구 분	프로그램의 수준	프로그램 운영	교수요원 자 질	연수시설	연수교재	수업방법	기 타	계
성 별								
남 자	19.1	22.9	8.9	8.9	7.0	31.2	1.9	100.0
여 자	18.3	36.5	1.9	4.8	2.9	29.8	5.8	100.0
연령별								
20대이하	19.1	36.4	4.5	2.7	2.7	30.9	3.6	100.0
30대	15.2	21.9	5.7	10.5	6.7	35.2	4.8	100.0
40대이상	26.1	23.9	10.9	10.9	8.7	19.9	0.0	100.0
경력별								
무경력	12.9	36.6	4.3	2.2	4.3	37.6	2.2	100.0
유경력	22.0	23.8	7.1	10.1	6.0	26.8	4.2	100.0
계	18.8	28.4	6.1	7.3	5.4	30.7	3.4	100.0

인 개념의 수준에 머무르고 교과영역별로 심화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8) 효과적인 수업방법

연수생들이 가장 효과적인 수업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면 연수생들은 성별과 연령구분에서 모두 토의와 세미나 형식의 수업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경력구분에서도 무경력자는 토의와 세미나 45.7%, 실기기능습득 17.0%, 현장실습 16.0% 순이고 유경력자도 토의와 세미나 48.2%, 현장실습 17.9%, 실기기능습득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연수생들은 강의식 보다는 토의와 세미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수업방법이라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수에서 지루하게 앉아서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배우기 보다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면

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9) 연수내용의 난이도

연수생들이 이번 연수내용의 난이도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연수생들의 41%가 연수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고, 56.6%는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3%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 연령 구분에서 모두 이번 연수 내용의 난이도는 보통이다, 이해하기 쉬웠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구분에서는 무경력자는 보통이다 53.1%, 이해하기 쉬웠다 45.8% 이해하기 어려웠다 1.0% 순이고 유경력자도 보통이다 58.6%, 이해하기 쉬웠다 38.5%, 이해하기 어려웠다 3.0%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효과적인 수업방법

N=262(100.0%), 단위 : %

구 분	강 의	토의와 세미나	워크샷	사례발표	실기기능 습득	현장실습	기 타	계
성 별								
남 자	7.5	50.7	8.8	3.1	11.9	17.0	1.3	100.0
여 자	7.8	42.7	10.7	2.9	17.5	17.5	1.0	100.0
연령별								
20대이하	8.2	38.2	10.0	4.5	18.2	20.0	0.9	100.0
30대	6.7	57.1	8.6	0.0	10.5	15.2	1.9	100.0
40대이상	8.5	46.8	10.6	6.4	12.8	14.9	0.0	100.0
경력별								
무경력	5.3	45.7	10.6	4.3	17.0	16.0	1.1	100.0
유경력	8.9	48.2	8.9	2.4	12.5	17.9	1.2	100.0
계	7.6	47.3	9.5	3.1	14.1	17.2	1.1	100.0

〈표 9〉 연수내용의 난이도  
N=265(100.0%), 단위: %

구분	이해하기 쉬웠다	보통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계
성별				
남자	39.4	58.1	2.5	100.0
여자	43.8	54.3	1.9	100.0
연령별				
20대이하	41.1	55.4	3.9	100.0
30대	46.2	52.8	0.9	100.0
40대이상	29.8	68.1	2.1	100.0
경력별				
무경력	45.8	53.1	1.0	100.0
유경력	38.5	58.6	3.0	100.0
계	41.1	56.6	2.3	100.0

이 결과에 의하면 연수생들에게 이번 연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10) 바람직한 연수 형태

연수생들이 바람직한 연수형태로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면 성별구분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합숙, 합숙과 통원의 병행, 통원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구분에서는 20대이하는 합숙 52.3%, 30대도 합숙 45.3%로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은 합숙과 통원 병행 51.1%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경력구분에서 무경력자는 합숙이 48.4%, 합숙과 통원의 병행 35.8%, 통원 15.8% 순이고 유경력자도 합숙이 45.0%, 합숙과 통원병행이 43.2%, 통원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연수생들은 합숙을 가장 바람직한 연수형태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합

〈표 10〉 바람직한 연수형태  
N=264(100.0%), 단위: %

구분	합숙	통원	합숙과 통원의 병행	기타	계
성별					
남자	46.5	10.1	42.1	1.3	100.0
여자	45.7	16.2	38.1	0.0	100.0
연령별					
20대이하	52.3	10.8	36.9	0.0	100.0
30대	45.3	13.2	39.6	1.9	100.0
40대이상	34.0	14.9	51.1	0.0	100.0
경력별					
무경력	48.4	15.8	35.8	0.0	100.0
유경력	45.0	10.7	43.2	0.8	100.0
계	46.2	12.5	40.5	0.8	100.0

숙과 통원을 병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퇴근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51.1%는 주간수업을, 32.1%는 주말에단 수업을, 16.9%는 야간 수업을 바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11) 연수시기 및 시간

이번 연수는 8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2차에 걸쳐 1개월씩 진행되었다.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이 연수가 연수시기가 적절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가 81.9%, 부적절하였다 18.1% 등으로 응답하였다. 연수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연수시기는 1월과 2월 8월 9월 10월으로 나타났고, 이번 연수에 대한 보충교육 시기에 대해서 53.6%가 1월에서 2월중에 응답하였고, 14.6%는 3-4월중에, 13.5%는 9-10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연수가 학습하기에 부적당한 여름에 실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적절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위의 조사결과처럼 청소년활동의 비수기에 현직지도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연수기간에 대한 조사도 적당한 기간이었다 58.9%, 너무 길었다 20.4%, 너무 짧았다 10.6% 순으로 응답하였다.

12) 일과표 및 학급편성

이번 연수는 오전 8시 30분 부터 21시까지 하루평균 10시간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학급인원도 100명 정도로 편성되었다. 이에 대한 연수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도 일과가 너무 촘촘하였다 81.5%, 적당하였다 18.1% 순으로 나타났고, 학급당 수업인원에 관한 조사 역시 너무 많았다 90.9%, 적당하였다 8.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와 연수생 소감을 종합하면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기능, 야간교육은 사례연구 및 발표와 분임토의를 운영하고, 학급당 인원 편

성은 강의 뿐만 아니라 실습 병행할 수 있게 인원수를 50명 정도로 분반하고 충분한 강의실 및 실습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편성시 연수생들의 직무나 경력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교육내용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3) 연수에 대한 만족도

연수생들의 이번 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연수생들이 이번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11>에서 보면, 성별로 볼때 남자연수생이 32.5%, 여자연수생이 36.2%로 각각 약간 만족했다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구분도 20대이하는 약간만족과 그저그렇다가 각각 32.1%로 나타났고 30대 35.8%, 40대이상 34.0%,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한 것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구분에서는 무경력자는 그저그렇다 35.4%, 약간만

<표 11>

연수에 대한 만족도

N=265(100.0%), 단위 : %

구 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계
성 별						
남 자	14.1	32.5	30.6	13.1	9.4	100.0
여 자	16.2	36.2	25.7	17.1	4.8	100.0
연령별						
20대이하	7.1	32.1	32.1	18.8	9.8	100.0
30대	17.1	35.8	24.5	14.2	7.5	100.0
40대이상	27.7	34.0	29.8	6.4	2.1	100.0
경력별						
무경력	9.4	32.3	35.4	12.5	10.4	100.0
유경력	18.3	34.9	24.9	16.0	5.9	100.0
계	15.1	34.0	28.7	14.7	7.5	100.0

족한다 32.3%, 약간불만 12.5%, 매우불만족 10.4%, 매우만족 9.4% 순이고 유경력자는 약간만족 34.9%, 그저 그렇다 24.9%, 매우만족 18.3%, 약간불만 16.0%, 매우불만 5.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무경력자의 만족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연수를 마친후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다시 말해서 취업의 알선이나 취업기회보장 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연수생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연수에 임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매우 적극적이었다 53.0%, 약간적극적이었다 32.6%, 그저 그렇다 8.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연수생들은 적극적으로 연수에 임하였던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업시간이나 합숙기간 중에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연수생 개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자기발전 36.4%, 전문지식획득 26.4%, 지도자적 자질향상 18.2%, 대인관계 17.1%,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번 연수가 연수생 개인의 자기 발전과 청소년 전문지식 획득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어느정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조사한 결과는 약간 활용할 수 있다 41.2%, 매우 활용할 수 있다 39.2%, 그저 그렇다 3.6% 별로 활용안될 것이다 7.3%, 전혀 활용안될 것이다 2.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80% 이상의 연수생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14) 연수생 선발 및 평가

사범계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당시 면접을 입시점수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서 교사의 성향 및 행위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지도자도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교사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수생의 선발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학력과 경력중심의 연수생선발 방법에서 간과되기 쉬운 청소년지도자의 인성이나 품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 이 문제는 연수생과의 면담과 진의 및 소감문 분석에서 연수생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것을 집단합숙생활을 하는 동안 연수생 개인의 성향과 품성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개인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될것이다. 적어도 청소년들의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길만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덕성과 신뢰감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면접이나 집단토의 등의 방법을 연수참가 지원자에게 사전에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연수생 선발에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평가는 크게 연수생의 학업성취에 관한 평가와 학습태도 및 합숙생활 관한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연수수료가 청소년지도자 자격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자격검정을 거쳐야 하므로 엄밀한 학습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당수의 연수생들이 연수평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연수분위기가

입시위주의 학교수업분위기를 연상하게 하고, 1개월 이상의 장기간 연수를 받은 사람이 학습 평가에 불합격함으로써 자격검정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현직 청소년지도자들이라는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학습태도 및 학습생활에 대한 평가를 연수수료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연수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향들을 평가하고 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방안을 찾기가 어렵지만 청소년지도자는 누가 보더라도 덕성있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젊음에 비추어 연수생 선발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 II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92청소년지도자 양성(특별)과정에서 1개월간의 연수를 이수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연수에 참여한 동기에서부터 연수소감에 이르기 까지 연수운영에 관한 연수생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93년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지도자 양성이라는 국가정책의 사전실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수생들중 청소년지도 두경력자의 대부분이 신문을 통해서 연수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연수에 자발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참석하였다. 그러나 연수에 관한 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이 연수에 참가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 유경력자의 경우도 무경력자와 마찬가지로 신문광고를 통해서 연수에 관한 정보를 얻은 비율이 제일 높았으나 무경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단체의 홍보나 자치단체의 협조공문에 의하여 정보를 얻은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담당업무에 따른 시간 부족이 연수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수생들은 청소년이해이론, 집단활동지도, 프로그램개발, 상담기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연수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이론 분야가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수생들의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민주적 시민정신의 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째, 연수생들은 우선 수업방법과 연수프로그램운영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의 및 세미나식 수업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수생들은 연수가 합숙이나 합숙과 통원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통원연수시 주간이나 주말에만 수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일과표나 학습편성 등은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연수생의 선발과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연수생 모집을 위한 홍보시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청소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자 양성의 기본취지 및 세부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단체 및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현직 청소년지도자가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지도자의 배치는 물론 자격소지자에 대한 신분보장, 취업알선 및 기회보장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직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장기간의 연수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지원해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자들의 다양한 학습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와 경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연수시 수업방법은 일방 주입식 방법보다는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수생들의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토의나

세미나, 청소년지도사례, 현장실습,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연수생 선발시에는 연수생의 경력과 학력만을 기준으로 선발하였을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연수 수료를 위한 수료사정에 학업성취와 학습태도 및 합숙생활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수 수료가 자격획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수중의 부담을 줄이고 분위기가 경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평가의 방법을 종합시험을 통한 평가보다는 교과목 담당교수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연수운영은 합숙형태로 운영하되 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급편성은 연수생들의 경력과 직무를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편성하고 실습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서울: 체육청소년부.
- 한국청소년연구소(1985), 청소년지도자 연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맹.
- 중앙교육평가원(1988), 정의적특성의 측정도구 편람 제4권.
- 엄정국, 문경일(1992), 통계분석을 위한 SPSS/PC+, 서울: 영진출판사.
- Dellbert C. Miller(1983), *Handbook of Research Design and Social Measurement*, 4th ed., NewYork: Longman Inc.,
- FAO(1987), *A Trainer's Guide to EVALUATION*,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Edgar J. Boone(1985), *Developing Programs in Adult Education*, Engldwood Cliffs: Prentice-Hall, Inc.